

明治本『金鰲新話』 비평의 특징과 의의

박 영 미*

국문초록

본고는 1884년 9월 5일 도쿄에서 간행된 『金鰲新話』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간행의 경위와 비평의 양상 및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메이지본 『金鰲新話』는 大塚彦太郎 집에 200여 년간 소장되었던 家藏本에 비평과 서발, 주석을 함께 수록하여 간행한 것이다.

메이지본 『金鰲新話』에는 요다 하쿠센(依田百川)의 서문과 李樹廷, 가모 시게아키(蒲生重章), 조 바이가이(長梅外), 오노 고잔(小野湖山)의 발문이 있으며 미시마 주수(三島中洲), 小野湖山, 長梅外, 李樹廷, 李景弼의 비평과 주석이 있다.

상기 메이지의 비평가들은 『剪燈新話』, 『聊齋志異』, 『虞初新志』와의 비교를 통해 『금오신화』의 독창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메이지 당시의 관점에서 『금오신화』 내의 人情에 관해 언급하며 욕망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架空’이라는 장치를 통해 逼真을 구현해 내는 방식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금오신화』의 한시에 대해서는, 시어의 활용과 시의 완성도에 관심을 가졌으나 주소체 문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오신화』를 간행한 이유는 湮滅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조·일간의 善隣의 증진도 간행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 후 도입한 1882년 수신사의 일원이었던 이수정이 일본의 지식인들과 함께 비평을 가하였으며 1884년에 이 책이 출판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아시아의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조일관계의 형성 속에서 볼 때 『금오신화』의 간행은 조선에 대한 ‘학지’의 맥락으로 읽힐 수가 있을 것이다. 『금오신화』에 대한 메이지 비평가들의 평가는 192·30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이어졌으나, 오히려 메이지본을 저본으로 한국에서 간행된 영인본에는 이들의 비평과 주석, 서발문이 모두 삭제되어져 버렸다.

[주제어] 메이지본 『金鰲新話』, 요다 하쿠센, 오노 고잔, 미시마 주수, 최남선, 독창성, 인정, 가공, 편집, 시어의 형상화

목 차

- | | |
|-----------------------------|------------------------|
| I. 서론 | IV. 메이지본 『金鰲新話』 비평의 특징 |
| II. 메이지본 『金鰲新話』 출판 경위와 비평가들 | V. 결론 |
| III. 『金鰲新話』에 대한 평가 | |

* 니쇼가쿠샤(二松學舎)大學 객원연구원 / pdoma@hanmail.net

I. 서 론

최남선은 일본의 大塚本 『金鰲新話』를 1927년 『啓明』 19호에 게재하고 해제를 하였다. 최남선은 『금오신화』의 初刻은 承應2년(1653, 내각문고목록)에, 再刻은 明治17년(1884) 간행되었는데 자신은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의¹⁾ 서가에서 이를 발견하여 鈔하였다가 후에 한 질을 書肆에서 구입하고 이것을 대본으로 ‘무익한 贅文’을 刪去한 후 간행을 하였다고 밝혔다.²⁾

그동안 일설되었다고 여겨졌던 『금오신화』가 이렇듯 최남선에 의해 소환되어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남선의 발표이후 『금오신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광순은 「『金鰲新話』의 研究史的 檢討와 爭點」(어문론총 제33호, 경북어문학회, 1999. 12.)에서 『금오신화』의 연구사를 4단계로 파악하였다. 제 1기는 초창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로 자료의 발굴 소개, 해제 및 주석 등의 관계문헌 정리 시기였다. 제 2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로 개별 작품론, 작가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관한 연구 등 구체적으로 작가와 작품에 접근하면서 작가와 작품 내면의 세계를 천착한 시기였다. 제 3기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작품의 구조와 배경은 물론 삽입시, 초현실의 문제까지 언급된 시기였다. 제 4기는 1980년대 중반에서 현재(1999년 당시)까지로 주로 작가의 의식구조를 비롯한 작품연구를 지속하면서 『금오신화』가 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설의 연원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 시기라고 하였다.

하야카와 사토미(早川智美)는 『金鰲新話 - 註釋と研究』³⁾에서 『금오신화』 연구를 제1기 『금오신화』의 재발견, 제2기 연구개시기, 제3기 『금오신화』의 판본과 전파경로의 3단계로 구별하였다. 제1기의 『금오신화』의 재발견은 일설되었던 『금오신화』가 세상에 재등장한 것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1884년 일본에서 『금오신화』가 간행되고, 1927년 최남선이 『金鰲新話』에 대한 해제를 계명 제19호에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마쓰다 코(松田甲)의 「剪燈新話句解に就いて」, 구보 텐수(久保天隨)의 「剪燈新話に関する事ども」, 김태준의 『조선소설사』가 이어졌다고 하였다. 제2기의 연구 개시기의 특징은 『剪燈新話』, 『오도기보코(伽婢子)』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금오신화』의 독창성을 밝힌 것이다. 제 3기는 『금오신화』의 판본과 전파경로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1999년 고려대중문과 최용철 선생의 조선본발굴을 통해 『금오신화』의 전파경로와 성립에 관한 연

1) 요시다 도고(吉田 東伍 1864~1918)는 일본의 역사학자·지리학자이며 能樂연구자이다. 그는 新潟県 출신으로 新潟学校中学部를 中退 한 후 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하여 소학교 교원이 되었다. 그 후 北海道로 건너가 『史學雜誌』에 기고했던 「古代半島興廢概考」가 주의를 끌며 연구자로서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1893년 『日韓古史斷』의 출판을 통해 역사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에 종군하여 일본의 지명의 변천을 기록한 연구가 없는 것을 깨닫고 연구에 매진하여 『大日本地名辭典』 11冊을 완성했다. 1899년 東京專門学校(早稲田大学の 전신) 文學部史學科 강사가 되었다가 후에 教授 및 이사에 취임하였다. 저서로는 『日韓古史斷』(1893)·『徳川政教考』(1894)·『能樂古典世阿弥十六部集』(1909)·『維新史八講』(1910)·『利根治水論考』(1910)·『倒紋日本史』(1913~1914)·『能樂古典禪竹集』(1915)·『日本文明史話』(1915)·『中古歌謠宴曲全集』(1917)·『日本歴史地理之研究』(1923)·『大日本地名辞書』(1899~1907) 등이 있다. 1906년 최남선이 와세다대학 지리역사과에 입학하였을 때 요시다 도고는 와세다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2) 崔南善, 「金鰲神話 解題」, 『啓明』 19, 계명구락부, 1927, 147~150쪽.

3) 早川智美, 『金鰲新話 - 註釋と研究』, 和泉書院, 2009, 325~342쪽 참조.

구가 더욱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최남선이 『금오신화』를 활자화한 이후 1970년대 아세아문화사와 대제각이 메이지본을 저본으로 영인본을 출간하였다. 『금오신화』의 연구에 있어 메이지본은 영인본의 저본이었으며, 근대적 연구를 촉발시킨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겠다.

대략 『금오신화』의 판본은 간행년도를 기준으로 5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朝鮮木版本 ②承應2년본(1653, 일본 공문서관 承應本, 隨心寺承應本) ③萬治3년본(1660, 京大萬治本, 早大萬治本) ④寛文13년본(1673, 天理大寛文本, 哈佛寛文本, 보경문화사영인哈佛寛文本, 京大寛文本) ⑤明治17년본(1884, 公文書館明治本, 아세아문화사영인明治本, 대제각영인明治本)이 있고 이외에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이 수록된 慎獨齋手澤本과 고려대소장의 필사본이 있다.

위의 판본 가운데 寛文本과 메이지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寛文本은 ‘道春訓點’이라는 題簽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또한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의 훈점이, 메이지본의 경우는 序跋과 金時習 小傳, 註釋이 첨부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행될 때에는 훈점과 서발, 주석 등이 모두 刪去되어졌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금오신화』 연구에서 주로 정본으로 사용한 메이지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⁴⁾ 최남선은 메이지본의 서발과 주석을 ‘무익한 贅文’이라고 刪去 하였지만 메이지본의 서발은 서지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오신화』의 일본 내에서의 전승 및 유통 상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특히, 당대까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금오신화』에 대한 비평과 근대 일본 문학자들의 『금오신화』에 대한 비평도 동시에 읽어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II. 메이지본 『金鰲新話』 출판 경위와 비평가들

1. 메이지의 지식인과 『金鰲新話』 - 비평가들

1884년 9월 5일 栃木縣의 土族인 大塚彦太郎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金鰲新話』가 도쿄에서 발간되었다. 서문은 요다 하쿠센(依田百川)이⁵⁾ 썼으며 ‘어느 망명 교유의 찬인 듯한’⁶⁾ 「매월당소전」이 있다. 李樹廷,⁷⁾ 가

4) 본고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구기호 〈한古朝48-104-1〉와 〈한古朝48-104-2〉를 대상으로 하였다.

5) 三浦叶(2003), 『明治の碩学』, 汲古書院. 참조.

요다 하쿠센(依田百川 1833~1909)의 호는 學海이며 千葉県 佐倉 출신으로 藩校 成徳書院에서 배우고 후에 그곳의 교수가 되었다. 메이지 유신 후 文部省의 관료로 일하다 사직하고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연극 개량에 열정을 불태웠으며 川上音二郎를 위해 脚本을 쓰기도 하였다. 漢文에도 뛰어났으며 『譚海』은 그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菊池三溪의 『本朝虞初新誌』와 병칭되기도 하였다. 그는 문을 藤森天山에게 배웠으며 川田鸞江와는 동문이며 지기였다고 한다. 川田鸞江은 또한 三島中洲의 절친이기도 하였으며 三島中洲와 依田百川도 매우 친하였다. 요다는 특히 일기를 50년이상에 걸쳐 썼는데 그것이 바로 『學海日錄』이다. 이 책은 明治의 風俗과 生活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 문인의 교류에 관한 기록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6) 최남선, 상계서.

7) 李光麟, 「李樹廷의 人間과 그 活動」,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7, 참조.

모 시게아키(蒲生重章),⁸⁾ 조 바이가이(長梅外),⁹⁾ 오노 고잔(小野湖山)¹⁰⁾의 발문이 있으며 본문에는 미시마 주수(三島中洲),¹¹⁾ 小野湖山, 長梅外, 李樹廷, 李景弼의 비평과 주석이 있다.

『금오신화』의 서문과 발문에는 『금오신화』의 간행 경위와 평가가 실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논하고자한다. 그리고 주석에는 조선의 지명과 역사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비평에는 5인의 비평이 실려 있다. 미시마 주수가 96회로 가장 많은 비평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오노 고잔이 80회, 조 바이가이가 15회, 이수정이 13회, 이경필이 13회의 주석을 하였다.

『금오신화』의 비평에 있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미시마는 25·6세때 요다와 昌平黌에서 만나 50년간 교우관계를 가졌던 인물이다. 또한 오노 고잔(小野湖山)과의 관계는 그의 저작인 『湖山近稿』에 부기된 미시마의 서문과 가모의 발문을 볼 때 3인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 이수정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정보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수정은 1882년 2차 신사의 방일 당시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참여를 하였고 1883년에 동경외국어학교 교사로 초빙되어 한국어를 가르쳤다.¹²⁾ 그가 1886년에 귀국한 것으로 보아 약 4년간 동경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일본의 비평가들과 접촉이 있었던 듯하다.¹³⁾

상기의 비평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호 관계 외에 특히, 이 시기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77년 도쿄대학이 설립되어 문학부 제2과로 和漢文學과가 설치되었고 1882년에 국학을 내용으로 하는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은 최초의 한글성서 번역자의 일인으로 민영익(閔泳翊)과 깊은 교분을 맺고 있었으며 1882년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신시킨 공으로 왕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이었던 안중수(安宗洙)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안중수의 권유와 임오군란 때의 공로 등을 인정 받아 1882년 수신사 박영효(朴泳孝)의 수행원자격으로 일본에 갔다. 일본 체재 중 안중수가 소개해준 당대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쓰다(津田仙)와 교분을 가지고 그로부터 근대적인 농법·법률·우편제도 등을 배우는 한편, 그의 영향을 입어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1883년에는 동경외국어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한국어를 가르쳤다. 1884년 7월金玉均(金玉均) 등과 접촉시켜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맥클레이(Maclay, R. S.)의 입국을 실현시켰으며, 1885년 1월 일본에 도착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내한에 앞서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886년 귀국 직후 처형되었다고 한다.

8) 가모 시게아키(蒲生重章 1833~1901)는新潟県 五泉市 출신으로 이름은 甕, 어려서 부모를 잃고 백부에게 양육되었다. 加藤松齋에게 사사받고 19세에 에도로 유학하여 湯川安道에게 의학을 배웠다. 그 후 村松藩주인 堀直實에게 출사하였으나 家老를 시로 풍자하여 쫓겨났다. 다시 에도로 돌아와 學塾인 青天白日樓를 열고 漢學을 가르쳤다. 尊皇攘夷를 주장하였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의학관에서 근무하였으며 昌平黌의 교수가 되었다. 후에 修史局史官되직 하였다. 저서로는 『近世偉人傳』(1877~1895)·『近世佳人傳』(1879~1880)·『蒲門壺簪集』(1894)·『斐亭文鈔』(1898)·『斐亭詩鈔』(1902) 등이 있다.

9) 조 바이가이(長梅外 1810~1885)는 의사이자 유학자로 大分縣 출신이다. 이름은 允 자는 允分·允文·世文이며 호는 梅外·南梁이다. 廣瀬淡窓에게서 배웠으며 心遠處塾을 열어 승도들에게 경학과 시문을 교수하기도 하였다. 尊皇思想을 주장하였으며 1880년에는 斯文會의 강사가 되었다. 저작으로는 『梅外詩抄7卷』·『唐宋詩醇抄5卷』·『左傳彙箋』·『在邇錄』·『古今異字叢』·『詩書評釋』·『同拾遺』·『春堂遺稿』 등이 있다.

10) 오노 고잔(小野湖山 1814~1910)의 본성은 横山, 이름은 卷, 자는 懷之였다가 뒤에 성을 小野, 이름을 長愿, 자를 舒公·士達·伺翁으로 고쳤다. 호는 湖山·晏齋·狂狂生·玉池仙史로 滋賀縣 출신이다. 梁川巖巖, 藤森弘庵에게 배웠으며 시인으로 유명하다. 藤田東湖과는 절친이었다고 한다. 동문인 大沼枕山, 森春濤와 함께 당시 시단을 지배하였으며 백거이를 좋아하고 육유의 시풍에 가까웠다고 한다. 저작으로 『湖山樓詩鈔』·『湖山樓十種』·『賜硯樓詩』 등이 있다.

11) 미시마 주수(三島中洲 1831~1919)는 한학자로 본명은 毅이다. 東京高等師範學校教授, 新治裁判所長, 大審院判事, 東京帝國大學教授, 東宮御用掛, 宮中顧問官 등을 지냈으며, 二松學舍大學의 前身인 漢學塾 二松學舍의 創立者이다. 重野安繹·川田鵬江과 함께 明治 三大文宗이라고 일컬어진다.

12) 李樹廷, 『善隣互話』, 荃齋藏版, 1883, 참조.

13) 비평에 참여한 인사 가운데 李景弼과 谷彦에 관한 정보 전혀 찾을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가 없다.

고전강습과가 설치되었다. 이후 문학부는 고전강습과를 甲部로, 한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지나고전강습과를 乙部로 나누어 운영되었고 다시 1884년에 國書科, 漢書科로 명칭을 바꿨다. 교수진은 中村正直(중국철학), 三島中洲(한문학), 島田重禮(중국철학, 한문학)이었다.¹⁴⁾ 당시 한문에 대한 교육은 사학, 정치학 등의 연구에 필요한 고전, 역사, 문학 등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한문학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었으며, 그러한 상황 하에 『금오신화』가 발견되어 이들에게 ‘다시읽기’가 된 후 해석과 해설이 병기된 『금오신화』가 출판되었던 것이다.

2. 『金鰲新話』의 간행 경위

『金鰲新話』에 수록된 서문과 발문을 통해 간행 당시의 정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1) 大塚彦太郎 집에 이 책이 소장된 것이 대략 200여년이라고 하는데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최근에 그가(김시습)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묻고는(『金鰲新話』가) 김시습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비로소 알고 마침내 간행하여 길이 전하고자 하였다.¹⁵⁾
- (2) 大塚彦太郎씨가 조선인 김시습 저작인 『金鰲新話』를 간행하고자 내게 가지고와 보여주었다.이 책이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이 400여년이나 되었다.¹⁶⁾
- (3) 이 책은 일본 大塚씨가 소장한 것으로 이미 200여년이나 되었으니 오래된 책임을 알겠다. 지금 이를 간행하여 길이 전하고자 하니 이에 오쓰카씨가 사람을 중히 여김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점까지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¹⁷⁾

(1)은 요다 하쿠센(依田百川)이 쓴 서문이며 (2)는 蒲生重章(가모 시게아키)의 발문, (3)은 이수정(李樹廷)의 발문이다. 서발문을 통해 메이지본의 저본은 大塚彦太郎의 집에서 200여 년간 소장하고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大塚彦太郎에 대해서는 栃木縣의 士族¹⁸⁾이라는 것만 밝혀져 있어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서발문을 부각할 당시까지, 그의 집안에서는 『금오신화』를 대대로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에 의해 간행이 주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4년에서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600년대인데, 이때 간행된 『금오신화』는 현재 承應2년본(1653), 萬治3년본(1660), 寛文13년본(1673)이 남아 있다. (2)의 발문에서 蒲生重章(가모 시게아키)는 지난 400여 년간 『금오신화』가 인멸되었다고 하였는데 ‘400년’전에 유통되

14) 町田三郎, 『明治の漢學者たち』, 研文出版, 1998, 128~136쪽 참조.

15) 依田百川, 「金鰲新話序」, 『金鰲新話』(明治本).

大塚君彦家蔵此書, 蓋二百餘年, 不知何人著. 頃問彼人士在我者, 始知出金子手. 遂付之梓, 以永其傳.

16) 蒲生重章, 「梅月堂金鰲新話跋」, 『金鰲新話』(明治本).

大塚彦將鐫朝鮮人金時習所著金鰲新話, 携來示余....如此奇書埋沒不顯者, 四百餘年矣.

17) 李樹廷, 「梅月堂金鰲新話跋」, 『金鰲新話』(明治本)

此書爲日本大塚氏所藏, 已二百二十餘年, 書之古可知矣. 今上於梓以壽其傳, 乃知大塚氏重其人也. 讀此者宜致思焉.

18) 士族은 메이지유신 이후, 구 무사계급에 부여한 신분상의 호칭이다. 1869년 版籍奉還 이후에 구 공경(公卿)과 다이묘(大名) 등은 華族이 되었으며 구 幕臣、諸藩藩士、神官、寺院 등의 家士 등은 士族이 되었다.

었던 본은 아마도 등본을 지칭한 것인 듯 하다.¹⁹⁾

위의 서발문을 통해 1600년대 『금오신화』가 일본에서 적어도 3차례이상 간행이 되어 유통되다가 그 후 200여 년간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여년간 湮沒되었던 책을 다시 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大塚彦太郎는 ‘길이 보전하고자’ 이를 재각한다고 하였다. 그는 『금오신화』의 진귀한 가치를 알아보고 길 이 후손에게 전해줄 만한 저서라고 인식한 듯하다.

오쓰카의 출판 의도에 요다는 ‘善隣’의 증진이라는 의미를 더하였다. ‘조선과 우리의 우호는 오래되었으며 최근에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다. 조선의 才賢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기에, 숨어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善隣의 하나가 될 것이다.’²⁰⁾라고 하여 조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Ⅲ. 『金鰲新話』에 대한 평가

메이지본 『金鰲新話』가 원문만이 아니고 서발과 비평이 있는 형태로 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쓰카家가 200여 년간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금오신화』의 서지적 사항, 예를 들면 저자가 누구인 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 『금오신화』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였다. 요다는 서문에서 김시습과 『금오신화』에 대한 당시 일본인의 인식정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 일찍이 조선인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와 이퇴계의 經義에 관한 제서를 읽고 학문의 깊고 넓음과 제식의 비상함에 탄복하였다. 당송의 여러 현자들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었다. 연정과 초일한 생각이 인정을 통찰한 것에는, 김시습의 『金鰲新話』 같은 것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였다.²¹⁾

그는 신숙주의 『海東諸國記』와 이황의 四書經義 등은 읽었으나 김시습의 저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고 밝혔다. 200여년간 세상에서 사라졌던 책이기에 비록 재등장이라고 하더라도 저자도 모르는 생경한 책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서문과 발문을 통해 제공되었다. 가모는 발문을 쓴 일인으로서, 나아가 『금오신화』의 가치를 알아본 자부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지금 오쓰카군으로 인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기이한 만남이라 할만하다. 동파가 일찍이 자신의 시필을 제하여 말하길 ‘500년 후에 백금의 값어치가 될 것이니’ 物이라 하는 것은 알아주는 이가

19) 이수정에 의하면 금오신화는 등본만이 있었다고 하였다. 주 25를 참조.

20) 依田百川, 「金鰲新話序」, 『金鰲新話』(明治本).

朝鮮與我同好久矣, 近日交最密, 情最親. 其有才賢猶在我也, 表其隱而揭之, 亦善隣之一端也.

21) 依田百川, 「金鰲新話 序」, 『金鰲新話』(明治本).

余嘗讀朝鮮人申叔舟海東諸國記 李退溪經義諸書, 歎服其學問淵博才識超凡. 殆與唐宋諸賢對立無愧色, 況未知有麗情逸思能洞悉人情 如金時習金鰲新話者也.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²²⁾

『금오신화』가 200여 년간 서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던 것은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 동파의 시필과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이 ‘백금의 값어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가모가 말한 『금오신화』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선, 『금오신화』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개가 『전등신화』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찍이 김안로는 「龍泉談寂記」에서 『금오신화』를 『전등신화』의 모방작이라고 하였다.²³⁾ 그러나 趙基永은 『生六臣合集』 부록에서 『금오신화』 중에 「南炎浮洲志」가 소설의 제일이다. 대개 『전등신화』를 답습했으나 出語가 그 것보다 뛰어나니 어찌 靑出於藍에 그치겠는가?²⁴⁾라 하였다. 이처럼 역대 조선에 한 『금오신화』에 대한 평가는 불일치하였다.

그렇다면 메이지본의 경우 『금오신화』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이수정은 『금오신화』를 『전등신화』의 모방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에는 소설이 많으나 모두 근거가 있으니, 대개가 야사류였으며 전기류는 매우 적었다. 다만 매월당의 『금오신화』와 김춘택의 구운몽 등 몇 편만이 있을 뿐이었다. 구운몽은 옛날에 청나라 사람 모씨가 평점을 한 10권을 세상에 인쇄하여 간행하였으나 『금오신화』는 등본만이 있어 매월당을 세상에 유명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책이 『전등신화』를 완전히 모방했다고 여겼다. 그 중에서도 龍宮赴宴錄은 水宮慶會錄과 너무나 비슷하였다.²⁵⁾

그러나 요다는 이같은 견해를 비판하며 ‘이 글은 아마 명나라 구종길의 『전등신화』를 본뜬듯하지만 그 才情은 세속에 얽매이지 않았고 文氣는 富贍하며, 아름다운 구와 단어는 비단처럼 찬란하여 지나침이 있을지언정 미치지 못하지는 않았다.’고²⁶⁾ 하였다.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와는 ‘才情’·‘文氣’·‘句語’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상기의 이유를 근거로, 『전등신화』의 성취를 능가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요다는 각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22) 蒲生重章, 「梅月堂金鰲新話跋」, 『金鰲新話』(明治本).

如此奇書埋沒不顯者, 四百餘年矣. 今因大塚生而顯于世, 可謂奇遇. 東坡嘗自題其試筆曰“後五百年, 當成百金直物, 故有遇有不遇也.”

23) 金安老, 「龍泉談寂記」, “著書藏石室曰: 後世必有知岑者, 其書大抵述異寓意, 效翦燈新話等作也.”

24) 趙基永, 『生六臣合集』 卷之九 附錄.

25) 李樹廷, 「梅月堂金鰲新話跋」, 『金鰲新話』(明治本).

朝鮮固多小說, 然皆有根據, 蓋野史之類, 其傳奇之作, 甚稀. 僅有梅月堂金鰲新話, 金春澤九雲夢數種而已. 九雲夢, 向爲清人某所評點成十卷印行於世. 惟金鰲新話, 只有謄本, 以梅月堂有重名於世. 世以其書全倣翦燈新話, 其中龍宮赴宴錄, 尤肖水宮慶會錄也.

26) 依田百川, 「金鰲新話 序」, 『金鰲新話』(明治本)

此篇蓋擬明人瞿宗吉翦燈新話, 而其才情飄逸文氣富贍, 琦句瑰辭璀璨如錦, 有過而無不及焉.

평가를 덧붙였다.

저포기와 규장전 두 편은 말은 아름답지만 음란한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부벽정기는 즐겁지만 음란하지 않고 슬프지만 지나치지 않으면서 凡人의 뜻을 얻었다. 부주지는 염라왕이 性命을 말한 理를 빌렸으니 의론의 탁월함이 재식을 구비한 자가 아니면 결코 판별할 수 없을 것이다. 부연록에서는 문장이 웅준하고 시부가 어려하여 해박한 학식과 뛰어난 재주를 볼 수 있다.²⁷⁾

요다는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의 엄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 듯하지만 문장의 성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醉遊浮碧亭記」,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의 경우에는 각각의 특징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요다의 평가와는 달리 가모는 ‘다만 여러 편들이 『虞初新志』체가 많았으며 성현의 정대한 필기가 특히 부족하다. 그러나 「醉遊浮碧亭記」 한 편만은 그 문장이 구양수·소식과 비슷하였고 그 시는 杜甫의 忠憤과 許渾, 劉禹錫의 필목이 있다고 할 만하다. 참으로 이 편은 압권이였다.’²⁸⁾라고 하였다. 가모는 『금오신화』의 문체가 『우초신지』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성현의 정대한 필기’, 즉 유학의 담론을 벗어난 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醉遊浮碧亭記」의 경우는 구양수와 소식, 두보, 허훈, 유유석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조 바이가이는 요다, 가모와는 다른 입장에서 평가하였다. 그는 저작의 의도를 기준으로 『금오신화』와 『聊齋志異』를 비교하였다.

전편의 문장은 화려하고 시부는 淸腴하니 훌륭한 紀事傳奇라고 하겠다. 내 일찍이 청나라 포유선의 『聊齋志異』를²⁹⁾ 읽고 패사 중 가장 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책을 읽어보니 그 일은 기묘하고 그 시는 바르니 결코 평판되고 기괴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생각건대 『요재지이』는 문장을 짓는데 기교를 온전히 하고자 하였기에 편마다 用意하였고 때론 사록문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오신화』는 그렇지 않았다. 『금오신화』는 시부에 기교를 다하고자 하였기에, 예를 들면 후권에 「南炎浮洲志」 문장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龍宮赴宴錄」 같은 것에는 변려의 賦를 빈번히 삽입하였으니 그 의도 한 바를 또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론은 일반적인 傳奇류와는 달랐다.³⁰⁾

27) 依田百川, 「金鰲新話 序」, 『金鰲新話』(明治本)

然其樗蒲記窺牆傳二篇, 辭則美矣, 未能脫淫靡之咎. 浮碧亭記則樂而不淫, 哀而不傷, 得凡人之旨. 浮洲志則借閻王說性命之理, 議論卓越, 非才識具備者, 決不能辨也. 赴宴錄, 則文章雄峻, 詩賦雅麗, 可以見其該博之學與俊拔之才矣.

28) 蒲生重章, 「梅月堂金鰲新話跋」, 『金鰲新話』(明治本).

但諸篇多處初體, 特乏聖賢正大之筆氣矣. 而獨如醉遊浮碧亭記一篇, 其文則歐蘇, 而詩則老杜之忠憤, 而許渾劉禹錫之筆墨也.

29) 『聊齋志異』는 중국 청나라 초기에 蒲松齡이 지은 문어체 소설로 1679년에 완성되고 1765년에 간행되었다.

30) 長梅外, 「梅月堂金鰲新話跋」, 『金鰲新話』(明治本).

通編 文章華麗, 詩賦淸腴, 紀事傳奇之佳者也. 余曾讀淸之蒲留仙聊齋志異, 亦稗史中之最妙者也. 今讀此篇, 其事奇而其詩則正, 決非狂怪之辭也. 意者彼其巧全在文章, 故篇篇用意, 時插四六之辭. 此編不然. 其巧全在詩賦, 如後卷雖有炎浮之文, 至龍宮赴宴則頻插駢體之賦, 其意之所在, 亦可知而已, 而其所論非尋常傳奇之類也.

조는 『聊齋志異』가 文에, 『금오신화』는 시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고 ‘문장은 화려하고 시부는 淸腴하니 훌륭한 紀事傳奇’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龍宮赴宴錄」의 경우 의론이 뛰어난 점은 여타의 전기류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메이지본에서, 『금오신화』는 『전등신화』, 『우초신지』,³¹⁾ 『요재지이』와의 비교 하에 평가되었다. 요가, 가모, 조는 모방작 여부보다는 『金鰲新話』의 長處와 특징을 밝히는데 주력을 하였다. 그들은 『금오신화』가 단순한 모방작이 아니라는 것을 각 편의 성취와 특징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금오신화』에 대한 기호의 편차는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서발문 저자에 따라 달랐다. 요다는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반면 가모는 「醉遊浮碧亭記」의 문학적 성취를, 조는 「龍宮赴宴錄」의 성리학적 의론을 높이 평가하였다.

메이지본의 『금오신화』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에게도 계승되었다.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1881~?)는 1926년 『금오신화』의 번역서를 조선에 게재하며 서문에 『금오신화』 해제를 하였다. 그는 국역(일본역)의 원본은 明治17년에 간행된 東京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요다의 주장을 인용하여 ‘『금오신화』는 명인 瞿宗吉의 『전등신화』보다도 나은 훌륭한 작품으로 칭찬받았’고³²⁾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은 美言妙辭와 麗情逸思로 독자를 황홀케하고 「醉遊浮碧亭記」는 이른바 ‘樂而不淫 哀而不傷’한 것이며 「南炎浮洲志」는 염라와의 말을 빌려 性命의 理를 설파하였는데 그의 의론은 상당히 탁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가모의 평가를 인용하여 「龍宮赴宴錄」에서는 저자의 해박한 학식과 俊拔한 재주가 보이며 문은 歐陽脩와 蘇東坡를 시는 杜甫, 許渾, 劉禹錫의 忠憤한 필치가 있다고 하였다.³³⁾

1931년에 마쓰다 코(松田甲)는 「剪燈新話句解に就て」에서 『금오신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金鰲新話』가 『剪燈新話』를 모방한 점이 있다는 점은 수긍하지만 제재는 전부 조선의 인물과 풍속으로 문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더욱 청신한 맛을 가해 骯髒의 기를 토해내니 이른바 靑出於藍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³⁴⁾

마쓰다는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에 영향을 받고 모방한 부분은 있지만 조선의 인물과 풍속으로 재가공해 내어 김시습 자신만의 문장과 사상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靑出於藍한 작품이 되었다고 보았다.

31) 『虞初新志』는 명말청초 시기 문학가인 張潮가 편찬한 책으로 명말청초의 문인들의 筆記와 시문집에 들어 있는 傳奇, 志怪, 志人 등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32) 天民散史, 「金鰲新話 無情の花と有情の花」, 『朝鮮』 139, 조선총독부, 1926.12, 87쪽.

33) 天民散史, 상계서, 87~88쪽.

34) 松田甲「剪燈新話句解に就て」, 『續日鮮史話』 2, 조선총독부, 1931, 144쪽.

Ⅳ. 메이지본 『金鰲新話』 비평의 특징

1. ‘人情’에 내재한 욕망의 긍정

『金鰲新話』는 사상의 正邪와 생과 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운문과 산문의 자유로운 변주를 통해 형상화 되었다. 때문에 한쪽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다른 한쪽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유가적 금욕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서게 되면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의 남녀교환은,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들에게 ‘樂而不淫’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윤리였던 것이다.

메이지본 『금오신화』는 남녀의 교환을 조선의 금욕주의적인 입장과는 달리, ‘욕망’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하였다. 「萬福寺樗蒲記」에서 양생이 저포놀이에서 부처님에게 이긴 후 궤 아래에 숨어 여인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俄而有一美姬, 年可十五六, 鬢淡飾, 儀容嫋妙, 如仙姝天妃’의 여인이 등장하였다. 미시마는 ‘이 때 양생의 기쁨이 어땠을까.’라고 양생의 기쁨에 동조하였다.³⁵⁾ 양생이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통해 여인을 얻고자하는 것도, 그리고 숨어서 여인을 기다리는 것도 더 이상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어 양생이 여인과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가 ‘相與講歡’을 할 때 중주는 ‘부럽고 질투난다’³⁶⁾고 하였고 湖山은 ‘일문일답에 情致가 무한하구나’라고 하였다.³⁷⁾ 양생과 여인이 나누는 교환은 부럽고 질투가 날 정도로 정치가 무한한, 그런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미시마와 오노는 간단한 코멘트를 덧붙이며 양생과 여인의 蜜語 사이로 파고들어갔다. 湖山은 이 부분에서 ‘女之不難’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달아 놓았다.

女之不難 4자는 매우 묘하다. 우리 동경의 우키요에를 그리는 사람들이 왕왕 이 묘한 정치를 잘 그려냈다.³⁸⁾

여인이 어려워하지 않고 양생을 따라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艷本과 春畫 등이 유통되던 에도 및 메이지 초기 당시의 독서 환경으로 유추해보면,³⁹⁾ 좋은 畫題가 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것이 그림이 되어 새롭게 읽혀지고 감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萬福寺樗蒲記」의 통속성이 재해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녀교환의 탐닉은 타락과 일탈로 이어지기도 한다. 「李生窺牆傳」에서 이생이 담을 넘어 최씨녀와 즐거움을 누리다가 ‘已入仙境, 心雖竊喜, 而情密事祕’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湖山은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두

35) 中洲曰: “此時, 生之喜, 何如?”(상 15쪽) 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한 텍스트 상의 페이지만을 표시하고자 한다.

36) 中洲曰: “可羨, 可妬.”(상 17쪽)

37) 湖山曰: “一問一答, 無限情致.”(상 17쪽)

38) 湖山曰: “女之不難 四字妙極, 但我東京浮世繪者, 往往能描出此妙.”(상 17쪽)

39) 林美一, 『江戸艷本ベストセラー』, 新潮社, 1991, 참조.

려움이 생겨나는 것이니 인정도 (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법이다.’⁴⁰⁾라고 하였다.

중세의 윤리로 볼 때 중매 없이 맺어진 남녀는 ‘野合’으로 비난을 받지만 때로는 남녀의 연정이라는 것이 윤리와 예의의 절차대로 할 수 없고, 제어되기도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밀스러운 만남이기에 사랑이 깊어질수록 비밀이 더해지고, 기쁨이 클수록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이 ‘人情’이라고 하였다.

인정이란 무엇인가.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는 눈은 미색을 보고 싶어 하고, 귀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어 하고, 입은 맛있는 것을 먹고 하며 사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情이다. 이런 감각의 욕망에는 ‘喜怒哀樂愛惡欲’의 七品이 있다고 하였다.⁴¹⁾ 인정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1885년에 간행된 쓰보우치 소요(坪内逍遙)의 『小説神髓』에도 이어진다. 소요는 ‘소설의 수뇌는 인정이고 세태풍속은 이를 따른다’고 하고 ‘인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하면 인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정 즉 백팔번뇌가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소요가 말한 ‘인정’은 단순한 심리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국 세상은 색과 돈’이라고 확인한 도쿠가와 시대의 현세주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이와 같은 ‘인정론’은 도쿠가와 시대만이 아니라 당대 메이지에도 유효한 세계관이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지는 생래적인 욕망에 대한 긍정이 바로 ‘인정’이라는 말 속에는 잠재되어 있다. 때문에 요다는 서문에서 『금오신화』가 ‘연정과 초일한 것이 인정을 통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메이지의 비평가들은 『금오신화』의 연정을 유교적 윤리로 이상화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지닌 인간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도 또한 人情의 하나라고 긍정하였다.

2. 逼真한 세계와 架空

메이지의 비평가들은 『금오신화』가 다루는 ‘人情’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은 ‘사실’이 아닌 ‘架空’의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메이지 비평가들은 가공의 배치와 역할, 성과에 대해 비평을 하였다. ‘架空의 발상이 특이하다’⁴³⁾라는 말은 어찌 보면 『금오신화』에 대한 특징이기도 하였다.

우선, 그들은 가공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李生窺牆傳」 중

文房几案, 極其濟楚. 一壁展煙江疊嶂圖, 幽篁古木圖, 皆名畫也. 題詩其上, 詩不知何人所作.

라고 한 단락에 대해 ‘가공의 배치가 매우 절묘하다’⁴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설 속의 방안을 묘사한 것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특히 벽에 걸린 煙江疊嶂圖와 幽篁古木圖의 경우는 王詵의⁴⁵⁾ 「煙江疊嶂圖」, 趙孟頫⁴⁶⁾의

40) 湖山曰: “喜極, 生畏怖, 是亦人情所不免.”(상 37쪽)

41) 黒住 真, 『近世日本社会と儒教』, ぺりかん社, 2003, 278~284쪽.

42) 鈴木貞美 저·김재수 역 『일본문학의 개념』, 보고사, 2001, 287~288쪽.

43) 中洲曰: 架空奇想.(상 68쪽)

44) 湖山曰: 架空布局 甚妙.(상 40쪽)

45) 王詵(1048~1104)는 북송의 화가로 자는 晉卿이다. 山西省 사람으로 부인은 英宗의 딸인 魏國公主이다. 집안에 寶繪堂을 지

「窠木竹石圖」와 각각 유사한 畫意를 가진 것으로 문인화에 대한 취향과 이를 완상할 정도의 교양이 있고 또 정숙한 여인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는 장치로 작용을 하였다.⁴⁷⁾

가공의 공간이지만 양반가의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공간의 창출과 이를 통해 인물의 캐릭터를 형상화 한 점에서 ‘절묘하다’라고 평가한 듯하다. 가공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의 혹은 가상의 허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과 다를 수도 현실을 재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야 하기 위해, 가공의 성공여부는 묘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현실처럼 ‘그럴듯하게’ 그려냈는가. 그럴듯한 세계는 다른 말로 ‘핍진’한 세계이기도 하다. 핍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세부묘사를 통한 핍진성의 확보, 동기화를 통한 핍진성의 확보, 문화적 관습에 의한 핍진성의 확보, 문학적 관습에 의한 핍진성의 확보, 주제의 보편성에 의한 핍진성의 확보가⁴⁸⁾있다.

가공의 성취에 대해, 「李生窺牆傳」의 서두에서 이생과 최씨 여인의 모습을 형용한 부분에서, 오노는 재가인을 형용한 것이 많은 말을 쓰지는 않았으나, 정신과 모습이 혁혁한 것이 천년의 세월이라도 생생하게 존재할 것이라 하였다.⁴⁹⁾ 또한 미시마는 ‘이 같은 정경과 이 같은 사람들은 화가라도 그려낼 수 없을 것’⁵⁰⁾이라고 평가하였다. 가공의 인물들이지만 이들은 현실의 인물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외모와 정신까지도 잘 묘사해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미시마는 이 경지를 그림을 능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묘사가 그림에 빚들어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이 가을 밤의 정취에 취해 부벽정으로 오르는 장면에 대해 오노는 ‘시경과 선경이 그림처럼 묘사되었는데 화가의 솜씨라고 하여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 지경이다.’⁵¹⁾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공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면 살아있는 듯이 할 수 있을까. 오노는 ‘문장은 아녀자의 정을 다 하였는데 才女가 재주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같이 위곡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세 바킨의⁵²⁾ 희곡 중에는 때때로 이와 같은 점이 보인다.’⁵³⁾라고 하였다. ‘委曲’ 즉 자세하고 곡진하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 가공의 세계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오노는 위곡함의 성취와 문학적 효과를 바킨의 희곡에서 이미 체험을 하였으며 이 경험으로 『금오신화』의 가공과 위곡을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럴듯한’ 세계는 대상의 외부만이 아닌 내면까지도 함께 표현되어야 살아나게

어 그곳에 法書와 명화를 소장했으며, 蘇東坡·黃庭堅·米芾 등과 친교가 깊었다. 시와 詞를 잘 지었고 서예에 능했으며,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렸다. 李成의 畫山皴法을 취하여 자신의 취향을 맑고 빼어나게 드러냈으며, 또한 청록색을 잘 사용했다. 「煙江疊嶂」·「漁村小雪」 등이 있다. 참고문헌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46) 趙孟頫의 子昂이다. 원의 조정에 出仕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문인화 초기의 대가로 존경을 받아왔다. 그의 주제에는 의도적으로 단순화된 색채 및 구성, 도식적이며 유지하기까지 한 형태와 규모의 변형을 통해 파상적인 미를 전반적으로 제거시킨 것이 드러나 있다. 또한 고풍적인 것과 다양한 운필의 전개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47) 김시습 저·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金鰲新話』, 홍익출판사, 2000, 참조.

48)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1999, 참조.

49) 湖山曰: “形容才子佳人, 皆不費多言, 而神彩奕奕, 千歲如生.”(상 35쪽)

50) 中洲曰: “此景此人, 畫手不能寫.”(상 35쪽)

51) 湖山曰: “詩境仙境, 寫來如畫, 畫手却不能及.”(상 59쪽)

52) 교쿠테이 바킨(曲亭 馬琴 1767~1848)은 에도후기의 요미혼(讀本) 작가이다. 본명은 다키자와 오키쿠니(瀧澤興邦)이다. 호는 著作堂主人, 飯台陳人, 玄同陳人, 大築山人, 蓑笠漁隱, 信天翁으로 대표작은 『椿説弓張月』 『南總里見八犬傳』 등이 있다.

53) 湖山曰: “文能盡兒女之情, 才女雖才, 恐不能如此委曲矣. 近世曲亭馬琴戲著中 時見此等之妙.”(상 48쪽)

된다. 『萬福寺樗蒲記』에서 오노는 네 여인의 각기 다른 모습을 형용한 것이 참으로 ‘傳神의 필치’라고 하였으며⁵⁴⁾ 양생이 여인과 재회하여 담소를 나눌 때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서사가 황홀하니 참으로 ‘귀신의 필치’라고 극찬을 하였다.⁵⁵⁾

‘傳神’이란 것은 대상의 외형의 사실적인 재현뿐 만 아니라, 자연 풍물이나 인물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상 속에 숨겨진 정신과 본질적인 특성을 그려낸다는 뜻이다. 여인의 모습, 말, 행동, 여인이 읊은 시를 통해 여인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부분에 이르러 김시습의 능력은 귀신의 필치와 같았던 것이다.

3. 한시의 형상화와 作法

『金鰲新話』의 서사는 산문과 운문으로 이루어졌다. 산문에 관한 비평은 필진성과 가공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운문에 관한 비평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오신화』에 가장 많은 비평을 한 인물인 미시마와 오노는 메이지를 대표하는 한시 작가이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메이지 시대는 일본이 脫亞入歐를 목표로 서구화를 지향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는 한시가 가장 융성한 시대이기도 하였다.⁵⁶⁾ 이들 작가는 바로 한시 붐의 중심에 놓여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금오신화』의 한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미시마는 ‘문자는 전아하고 아름다우며 정서가 얹혀있어 생의 평생의 힘을 다하였으며 영결의 글은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라고 평가하기도 하였고 오노는 ‘글자마다 마음을 베고 눈을 상하게 하며 구절마다 혼백을 놀라게 한다.’⁵⁸⁾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눈에 『금오신화』의 한시는 서사의 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생규장전의 최씨녀가 부른 구애의 노래인,

홀로 비단 창 가에서 수 놓는 손길 더디니
온갖 꽃떨기 속의 피꼬리 울음 곱기 때문이라네.
괜시리 가만히 봄바람 원망하며
바늘 멈추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네.

獨倚紗窓刺繡遲, 百花叢裏轉黃鸝。
無端暗結束風怨, 不語停針有所思。

54) 湖山曰: “形容四女子各異樣, 眞是傳神之筆.” (상 25쪽)

55) 中洲曰: “如有如無, 敘得恍惚, 眞是鬼神之筆.” (상 30쪽)

56) 이노구치 아츠시 저 심경호 · 한예원 공역,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1999, 629~630쪽.

57) 中洲曰: “文字典麗, 情緒纏綿, 生盡平生之力, 修永訣之辭, 可謂壓卷之作矣.” (상 32쪽)

58) 湖山曰: “字字斬心傷目, 句句驚魂動魄.” (상 33쪽)

이상의 시는 이미 ‘시경 정풍과 위풍의 유풍이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심취하게’⁵⁹⁾하는 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들의 마음을 끌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생이 최씨녀에게 답한 시의 비평에서 그 단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마상여가 탁문군을 유혹할 때
정회 이미 충분히 알았다네.
꽃잎 곱게 물들은 담머리의 요염한 도리꽃
바람 따라 어느 곳에 어지러이 떨어지나.

相如欲挑卓文君，多少情懷已十分。
紅粉牆頭桃李艷，隨風何處落繽紛。

라고 읊은 것에 대해 초는 ‘결구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표현 하였으니 형용이 기묘하다.’고 하였다.⁶⁰⁾ 그는 형용의 성취에 주목하여 은유로서의 도리꽃과 시어의 중의적 활용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風情發露’⁶¹⁾한 남녀 교환의 염정시는 간혹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메이지의 비평가들은 내용보다는 시어의 구사와 형용에 주목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금오신화』의 ‘형용’이라는 표현에 관한 비평 이외에 서사의 장치로서의 한시도 중시하였다. 『금오신화』 가운데 운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 작품으로 「醉遊浮碧亭記」를 꼽고 ‘이 편은 시구로서 뛰어남을 보이고자 하였기에 서두에 정돈되게 산문의 정격을 사용하였으니 또한 하나의 작법이 된다.’⁶²⁾고 하였다. 산문과 운문이 혼효된 작품이지만 서사의 전개는 각 편이 추구하는 것에 의해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4. 奏疏體에 대한 비판

15세기에 저작된 조선의 문학이, 19세기 이역의 독자들 만났을 때 그들이 느끼는 낯설은 때로 곤혹스럽기도 하였다. 그들이 『翦燈新話』, 『虞初新志』, 『聊齋志異』를 이미 읽은 독자라고 하더라도 『翦燈新話』, 『虞初新志』, 『聊齋志異』가 일본에 유통되던 상황과 비교할 때 『금오신화』의 존재는 ‘생경’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도리어 탐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은 『금오신화』와 여타의 책의 ‘차이’를 주목하여 『금오신화』만의 성취와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을 것이다.

메이지의 비평가들은 外様の 낯설 가운데 특히 주소체에 주목하였다. 주소체는 성리학 텍스트에 빈번히

59) 湖山曰: “鄭衛遺響, 使人心醉.”(상 35쪽)

60) 梅外曰: “結多少意思, 以花繽紛, 形容妙妙.”(상 36쪽)

61) 中洲曰: “風情發露.”(상 35쪽)

62) 湖山曰: “此篇欲以詩句見巧, 故起手整整用記文正格, 亦一作法.”(58쪽)

사용된 문체로, 성리학을 공부한 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문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南炎浮洲志」에서 박생이 지은 一理論에 대해 ‘의론이 정대하여 유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말이 되었지만 다만 송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애석하다.’⁶³⁾고 하였다. 성리학적 태두리에 머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오노는 『금오신화』에 사용된 주소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의론은 정대하지만 주소체의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⁶⁴⁾라고 하였으며 이같이 ‘조자를 많이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 200여 년 전 유자들의 문과 비슷하다’⁶⁵⁾고 혹평 하였다.

주소체의 문장이 낯설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더 이상 쓰지 않는 문체였기 때문이다. 메이지 비평가들이 보았을 때 주소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문체로 200여년 전의 유자들이나 쓰던 문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노의 비평에서 보듯, 일본에서도 200여 년 전에는 당대를 풍미했던 문체이기도 하였다. 160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였고, 『금오신화』의 저작연대를 고려해볼 때 15세기에는 조선에서도 사용되었던 문체로, 성리학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조선, 중국, 일본에 광범위하게 수용된 범아시아적인 문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메이지의 비평가들은 주소체의 이같은 특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주소체의 역사적 배경을 차치하고 대신 그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근대 일본’의 시선으로 ‘중세 조선’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미시마의 경우 성리학과 양명학을, 오노의 경우는 한학을 공부한 시인으로, 메이지 유신을 겪은 19세기 후반의 일본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유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하더라도, 일본 사회의 ‘和魂洋才’ 물결은 서구화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서구에 대한 지식도 동시에 축적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19세기 그들이 가진 인식의 ‘위치와 좌표’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에게 15세기의 조선은 편협하게 성리학을 膠柱鼓瑟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소체와 성리학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儒者라는 정체성을 버린 것은 아니다. 미시마는 ‘염라왕을 빌려 우리 유학의 정대하고 공명한 설을 말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교활한가’⁶⁶⁾라고 하였다. 유자로서의 인식은 특히, 「南炎浮洲志」 비평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불교가 풍속을 해한 것이 조선이나 일본이나 모두 탄식할 만하다.’⁶⁷⁾라고 하거나 ‘불교의 성행이 조선이나 일본이나 일반이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근세에 들어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조선도 또한 그러한가.’⁶⁸⁾라고 하여 불교의 성행에 대해 비판하였다.

63) 中洲曰: “議論正大, 不愧儒者之言. 但不免宋儒範圍, 是可惜.”(하 2쪽)

64) 湖山曰: “論則正矣, 然未免奏疏家習氣.”(하 3쪽)

65) 湖山曰: “多用助字, 似我邦二百年前儒流文.”(하 4쪽)

66) 中洲曰: “假縱摩王, 吐吾儒正大公明之說, 何等愉快何等狡猾!”(하 4쪽)

67) 中洲曰: “佛說之害風俗, 彼此同歎.”(하15쪽)

68) 湖山曰: “佛教之盛行, 彼我一般, 實可驚者. 但我邦近世, 其世漸衰, 朝鮮亦或然乎?”(하 15쪽)

V. 결론 - 메이지본 『金鰲新話』 비평의 의의

본고는 1884년 9월 5일 동경에서 간행된 『金鰲新話』를 대상으로 간행의 경위와 비평의 양상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메이지본 『금오신화』에는 요다 하쿠센(依田百川)의 서문과 李樹廷, 가모 시게아키(蒲生重章), 조 바이가이(長梅外), 오노 고잔(小野湖山)의 발문이 있으며 미시마 주수(三島中洲), 小野湖山, 長梅外, 李樹廷, 李景弼의 비평과 주석이 수록되어 있다.

미시마는 『금오신화』의 「書甲集後」를 인용하여 ‘편마다 풍류 넘치는 기이한 이야기로, 참으로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책이다.’⁶⁹⁾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발문과 한시의 비평에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이들은 『금오신화』에서 전아하고 고풍스런 풍격을 발견하였다.

메이지 시대는 에도 시대를 이어 다양한 종류의 소설이 흥성한 시대이며 또한 서구의 소설류가 번역이 되어 읽혔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통속성과 서구화가 혼재된 이상, 그 속에서 儒者가 추구하는 문학적 이상은 더 이상 배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그들은 순정한 한문의 한 전형을 『금오신화』에서 발견한 것은 아닐까. 때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樂而不淫’하지 않으며, 불교라는 이단을 비판하면서 유학을 고취시키는 문학의 존재가 의미 있게 읽혔던 것이다.

그러나 『금오신화』의 간행을 ‘선린’의 실천이라고 주장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오신화』의 비평에는 문학 외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고 있다. 새로운 조일관계에 대한 통찰이 앞서야 ‘선린’의 문맥도 이해가 될 것이다.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일의 관계는 근대적 외교관계라는, 전통적 조일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學日’ 또는 ‘知日’의 목적을 띤 신사유람단, 수신사 등은 조선통신사와는 분명 위상과 양상을 달리 하고 있었다.

일본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시아의 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중국과 조선에 대해서는 ‘半開’의 상태라는 경멸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시아연대론, 삼국평화론을 발신하며 아시아의 단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조선과 중국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과 필요에 의해 아시아는 연구가 되었다. 즉 서구화된 문명국으로서, 근대적 학술 방법에 의한 아시아에 대한 연구와 연대의 대상으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중국은 ‘지나’로 불리며 동양학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같이, 조선도 대상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조일간의 교류를 ‘선린의 실천’이라고 할 때 마치 그것이 조일이 호혜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일본이 생각하는 ‘선린’에는 이와 같은 ‘시혜적 입장’ 즉, 앞서 문명개화한 국가로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푼다는 생각이 강하다.

재간행도, 단순히 『금오신화』가 조선에는 없고 일본에는 판본이 있어 재간행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존하고 있는 일본’과 그것에 대해 ‘현재의 관점으로 비평을 하는 일본’의 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69) 中洲曰: “篇篇風流奇話, 眞是人間不見之書.”(하 47쪽)

〈참고문헌〉

金時習, 『金鰲新話』, 1884.

李樹廷, 『善隣互話』, 荃齋藏版, 1883.

崔南善「金鰲神話 解題」, 『啓明』 19, 계명구락부, 1927.

박영미, 「일제 강점기 在朝 지식인 多田正知의 한문학 연구에 대한 試論」,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2010.

_____, 「일제 강점기 松田甲의 한문학 연구에 대하여」, 漢文學報 22, 우리한문학회, 2010.

天民散史, 「金鰲新話 無情の花と有情の花」, 『朝鮮』 제139호, 조선총독부, 1926.

松田甲, 「剪燈新話句解に就て」, 『續日鮮史話』 2, 조선총독부, 1931.

이노구치 아즈시 저 심경호·한예원 공역,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1999.

김시습 저·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오타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출판부, 1999.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97.

早川智美, 『金鰲新話－註釋と研究』, 和泉書院, 2009.

三浦叶, 『明治の碩学』, 汲古書院, 2003.

林美一, 『江戸艶本ベストセラー』, 新潮社, 1991.

黒住 真, 『近世日本社会と儒教』, 베리칸社, 2003.

町田三郎, 『明治の漢学者たち』, 研文出版, 1998.

鈴木貞美 저·김채수 역, 『일본문학의 개념』, 보고사, 2001.

* 이 논문은 2012년 6월 29일에 투고되어,
2012년 7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8월 20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Kumoshinhwa(金鰲新話)』 published at Meiji(明治)

Park, Youngmi*

In this paper, 『kumoshinhwa(金鰲新話)』 which was written in Tokyo in Sep. 5th, 1884 is researched about the aspe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tails of the publication and comment. The 『kumoshinhwa(金鰲新話)』 was published from an household book which had possessed for about 200 years by Otsuka(大塚彦太郎) together with comments, prefaces, epilogs and annotation.

『kumoshinhwa(金鰲新話)』 published at Meiji(明治) is consisted of the prefaces written by Yoda(依田百川), the epilogs written by Lee sujung(李樹廷), Kamo(蒲生重章), Cho(長梅外), and Ono(小野湖山), and the comments and the annotations written by Mishima(三島中洲), Ono, Cho, Lee sujung, and Lee kyongpeel(李景弼).

The critics recognized 『kumoshinhwa(金鰲新話)』's originality, and pointed out its advantage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Jeondungshinhwa(剪燈新話)』, 『Yojegjii(聊齋志異)』, and 『Uchosinnji(虞初新志)』. Also, in the standpoint of Meiji era, in 『kumoshinhwa(金鰲新話)』 they referred the kindness, and conducted to agree to the desire. Also, through the device called pseudomorph, they highly estimated to realize the actual fact. In a mean while, for Chinese poetry in 『kumoshinhwa(金鰲新話)』,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usage of the poetry word and completeness of the poet, but assumed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style of annotation.

The outward reason of publishing 『kumoshinhwa(金鰲新話)』 was to prevent an extinction, but another reason was to promote the neighborly friendship between Chosun and Japan. After the conclusion of a treaty of Kanghwado in 1876, Lee sujung(李樹廷) who was a member of diplomatic mission in 1882 criticized 『kumoshinhwa(金鰲新話)』 with the educated class in Japan, and this book was published in 1884. In the point of the change of the political circumstance and the new formation of Chosun-Japan relation, the publication of 『kumoshinhwa(金鰲新話)』 could be treated as the veins of the leaning knowledge for Chosun. Their estimations of 『kumoshinhwa(金鰲新話)』 were held on by researchers in the period of 1920 and 1930, but in the photographic

* Visiting Researcher, Nishougakusha University / pdoma@hanmail.net

edition which was published based on the text published at Meiji(明治) in Korea, all of their prefaces, and comments and annotations were modified.

[Key Words] 『kumoshinhwa(金鰲新話)』published at Meiji(明治), Yoda(依田百川), Ono(小野湖山), Mishima(三島中洲), Choi, namnsun(崔南善), creativity, human desire, fiction, actual fact